



25일 광주 대성여고 미술실에서 열린 '학교로 찾아가는 미로갤러리스쿨' 행사가 끝난 후 특강에 참여한 프랑스 작가 피에르 귀린과 미술반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계속해서 실험하고 자유롭게 작업하세요”

대성여고 특강 '미로예술창작플랫폼' 프랑스 작가 피에르 귀린
뤽 티브흐 등 해외 작가 5명, 5개 학교 찾아 '미로 갤러리 스쿨'
“해외 작가와 특별한 만남, 작가 꿈꾸는 학생들에 새로운 교육”

“제 작업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 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작품은 제 손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해석해 보세요. 확장 시절에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기본으로 계속해서 실험하고 자유롭게 작업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 25일 광주 대성여고(교장 김오복) 미술실에서 특별한 강의가 열렸다. 프랑스에서 판화, 회화, 북아트 작가로 활동하는 피에르 귀린이 학교를 찾아 자신의 판화 작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의미있는 만남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작가를 꿈꾸는 미술부 학생들이 참석했다.

작가들이, 그것도 코로나 시대에 해외 작가들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 미술부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차분히 강의를 듣고 질문도 하며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광주와 프랑스 판화교류를 이끄는 '코레라송'(CORElation) 멤버인 피에르 귀린은 뉴욕현대미술관에 북아트 작품이 전시돼 있는 유명 작가다.

그는 판화기법에 대해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한 후 프린트한 작품을 학생들에게 직접 나눠주고 설명을 이어갔다. 또 다양한 이미지를 마음 속에 그려보며 혼자서

여러가지 실험을 하고, 벽화를 그리기도 했던 자신의 중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도 들려줬다. 강연이 끝난 후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학생들은 작가에게 사인을 청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지난해 코로나 19로 프랑스에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너무도 오랜만에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올해 광주의 레지던시프로그램에 참여해 전시를 하고, 학생들을 만나게 된 것도 색다른 경험입니다.”

미술부 이유민 학생은 “평소에 생각도 못했던 외국 작가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디자인을 전공할 예정인데, 판화 장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돼 디자인을 하는 데도 새로운 영감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피에르 귀린은 광주시 동구청이 운영하는 미로센터 국제창작플랫폼 입주작가다. 광주시 동구청과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대표 노정숙)가 거버넌스 협약을 통해 운영하는 국제창작플랫폼의 올해 해외 입주작가는 프랑스 판화 작가 뤽 티브흐, 독일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안민혁, 이수지 작가, 중국 출신 손실동 작가 등 모두 5명이다.

작가들은 지난 10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마치고 입주, 광주에서 작업과 전시, 특강을 이어가고 있다. 피에르 귀린은 갤러리 생각사에서, 뤽 티브흐는 전남대박물관에서 초대전을 열었으며 5명의 해외작가들은 김은택·강지수·이한범·정승원·박수만·맥팁 등 광주 예술가들과 함께 무등갤러리에서 미로 창작플랫폼 참여작가 전시회 ‘삶의 가치’전을 개최했다.

해외 작가들이 참여한 '학교로 찾아가는 미로 갤러리 스쿨'은 미로센터와 광주시 교육청이 함께 주최한 의미 있는 행사로 지난 11월8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전시와 예술가와의 만남이 어우러진 행사로 살레시오여중, 서창중, 대성여고에서 행사가 열렸고 앞으로 운리중학교와 전남여고에서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각 학교에는 이번 레지던시 참여작가들의 작품을 만나지는 미니 갤러리도 마련됐다.

광주시 교육청 예술교육 혁신사업에 선정돼 미술실을 리모델링, 전시공간을 만들고 이번 특강을 유치한 대성여고 전미나 미술교사는 “앞으로 작가가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해외작가들과의 만남이 좋은 공부가 됐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접하는 전시회도 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로예술창작플랫폼과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는 내년 봄 광주지역 판화가들의 프랑스초대전과 워크숍,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모스크바 레지던시에서 작가를 파견할 예정이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미술대전’



한국화 대상 이해천 작 '차이나는 클래스'

서양화 이영주, 한국화 이해천 '대상'
대상 7점·우수상 25점·특선 293점 등 총 878점

제37회 무등미술대전에서 이영주(서울) 작가의 '세월의 초상 2'가 서양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 한국화 부문에서는 이해천(광주) 작가의 '차이나는 클래스'가 대상을 받았다.

(사)광주전남발달전협의회(회장 최영관)가 주최하는 제37회 무등미술대전 수상작이 발표했다. 전체 입상작은 대상 7점(상금 각 500만원), 우수상 25점, 특선 293점, 입선 553점 등 총 878점이며 수채화, 판화 부문은 대상작품을 선정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 심사는 한국미술협회 이광수 이사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진행됐다.

전국의 공모전 출품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이번 미술대전에는 지난해와 똑같은 1448점이 출품됐으며 타 지역 작품수가 50%를 넘어 무등미술대전의 전국적인 위상을 보여줬다.

지난 1985년 지방미술문화의 향상발전과 전국 미술인의 등용문을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무등미술대전은 지금까지 총 4만1864점이 출품돼 2만1332점의 입상작을 배출했으며 대상 수상작품 258점은 시상금으로 매입, 지역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광수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전국 각 지역에서 참신하고 좋은 작품이 출품돼 전국 어느 공모전보다 권위와 명성이 높은 대전이었다”며 “무등미술대전이 앞으로 더욱 더 발전, 역량있는 공모전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문화정당에 이바지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서양화 대상 이영주 작 '세월의 초상2'

시상식은 오는 12월10일 오후2시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12월10일부터 6일까지 비엔날레관에서 열리는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입상작은 (사)광주전남발달전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37회 무등미술대전 부문별 대상 수장작

▲서양화=이영주(서울) '세월의 초상 2'
▲한국화=이해천(광주) '차이나는 클래스'
▲문인화=이영숙(서울) '청배와 수선화'
▲조각=박기태(광주) 'RIGHT'
▲사진=이가영(대구) '패턴'
▲공예=유희레(강원도 원주) '여인의 향기'
▲서예=오성중(제주) '산사(임재)'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제18회 월아미술상’ 김소현·박의천 수상

양계남 조선대 명예교수 제정

‘월아미술상’은 조선대에서 후학들을 양성했던 월아 양계남 조선대 명예교수가 젊은 후배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 18회를 맞은 월아미술상은 엄격한 포도폴리오 심사를 거쳐 조선대 미술대학 한국화 전공 재학생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매해 장

작 지원금(200만원)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월아미술상은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학부 한국화 전공에 재학 중인 김소현·박의천씨가 수상했다. 수상자의 작품을 만나지는 전시회는 12월 3일까지 조선대 미술관에서 열린다.

수상자들은 “올해 수상자로 선정돼 전시회를 열게 돼 기쁘고 지도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한국화의 발전을 위해 학업과 창작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소현 박의천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